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October 2014 vol.115

10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임 진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오호영

생생리포트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향
김영등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직종별 채용인원 현황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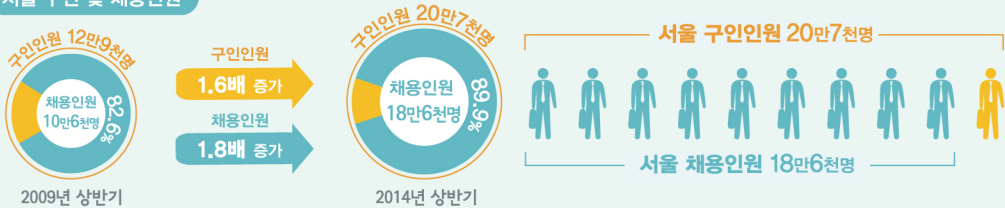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서울의 직종별 채용인원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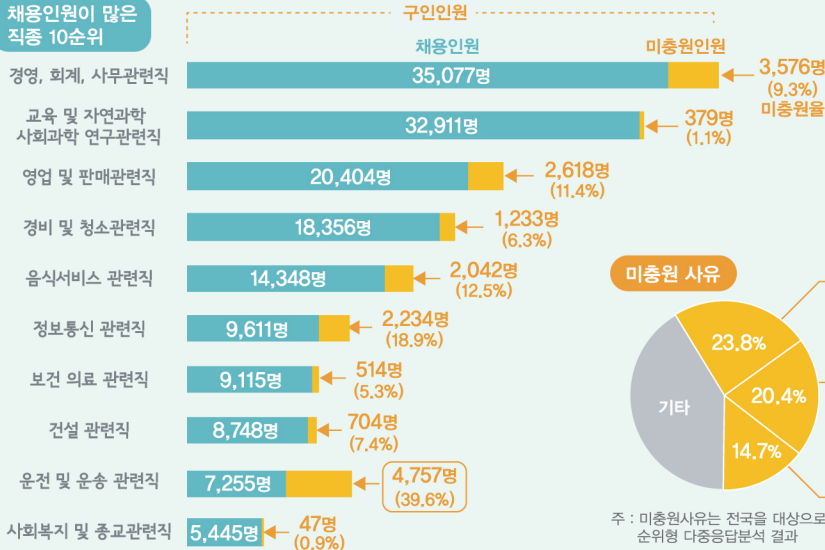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서울에서 채용된 인원은 18만6천명(구인인원의 89.9%)으로 지속적 증가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분야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며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분야가 가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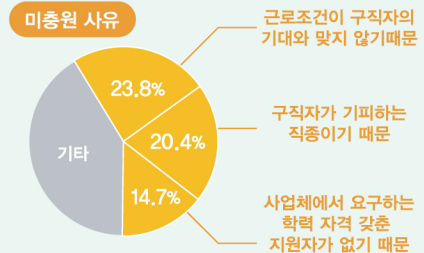
서울 구인 및 채용인원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 10순위



미충원 사유



주 : 미충원사유는 전국을 대상으로한 순위형 다중응답분석 결과

이달의 이슈 3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임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9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생생리포트 17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향**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인포그래픽스 27 **서울의 직종별 채용인원 현황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3 **요 약**
35 **생 산**
37 **소 비**
38 **고 용**
41 **물 가**
42 **부동산**
44 **금 융**
52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jeanlim@kir.re.kr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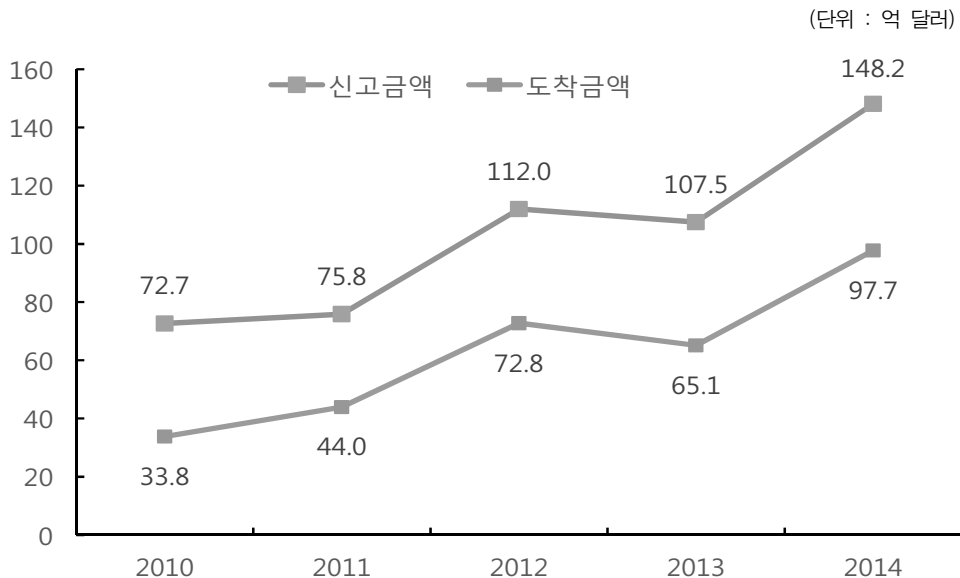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입액이 금년 3분기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3분기(누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3년 3분기 누적 유입액인 107.5억 달러 대비 37.9% 늘어난 14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65.1억 달러 대비 무려 50.1% 늘어난 9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가 2010년에는 72.7억 달러, 2011년에는 75.8억 달러, 2012년에는 112.0억 달러, 2013년에는 107.5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14년중 FDI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FDI가 신고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고 도착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하면서 향후 FDI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2014년 들어 FDI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본 원고는 임진(2014)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2014) 등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4년말에 이르면 FDI 유입액은 연간 목표액인 170억 달러를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 최근 5년간 1/4~3/4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 1/4~3/4분기 중 제조업으로는 60.7억 달러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101.4%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으로도 86.0억 달러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부품소재가 전년 동기 대비 74.6% 늘어난 3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제조업이 FDI 증가를 견인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FDI 유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이 전년대비 16.6% 감소한 반면, 중화권은 89.9% 증가, EU는 84.1% 증가, 미국은 6.4%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이 10.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0.4% 증가하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19.3억 달러, 룩셈부르크는 19.0억 달러 등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FDI는 공장설립 등 투자 자체로 인한 직접경로 뿐만 아니라, 고용유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Blomstrom et al.(1994), Borensztein et al.(1998) 등 기존연구에 따르면 FDI 유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진다.

우선 FDI 확대로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자본스톡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2008.4월, 조사통계월보)의 연구에 따르면 FDI 유입액이 1% 증가할 때 설비투자는 0.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크지 않고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등 해외투자 또한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DI 확대는 국내기업의 미흡한 설비투자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도가 높은 외국기업이 필요 자본을 국내에서 대규모로 조달하려고 하면 국내 금리상승으로 국내기업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FDI가 국내기업의 투자를 구축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FDI는 고용확대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고용창출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당한 유희인력이 존재한다.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상당하다. 따라서 FDI를 통한 고용확대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의 임금수준이 평균적인 국내기업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외국인투자확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DI는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도 기여를 한다. 자본재 도입을 통한 설비 도입, 채용을 통한 신기술 습득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기술이전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높은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FDI를 통한 인적·물적 생산성 제고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이와 같은 FDI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 정부는 FDI를 확대하고자 2013년 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월 1일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1월 9일에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규칙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료제출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자유무역 시험 지구를 지정(13.9월)하고 동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인도는 항구, 식품가공,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FDI를 100% 까지 허용 (12.4월)하고 일부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100% 외국자본소유 기업설립을 허용 (12.5월)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 (12.1월)하고 신 투자계획안 및 광업법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FDI 투자절차를 간소화 (12.2월)하였다.

따라서 FDI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FDI 유입액이 국가별로는 일본,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규모별로는 대형투자 분야에서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FDI가 특정국으로부터 또는 특정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시켜 보다 광범위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4월 한·호주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호주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호주는 1차와 3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직접투자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FDI 유치 노력이 Greenfield형 제조업 대형투자에 대해 조세, 입지 등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물류, 법률 등 유망 서비스분야에서도 FDI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원칙 정립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개혁이 국내기업의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서울을 금융 중심지로

그동안 금융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실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출제조업 중심 성장모형의 한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신 성장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금융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의 금융 중심지 추진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서울시는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하였다. 중앙정부도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2005~08년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2007년 금융 중심지 조성추진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과 11년 금융 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2009년 금융 중심지 지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이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등과 비교해 볼 때,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금융규제 등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공공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서울시의 금융 중심지 조성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FDI를 통해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중국 위안화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중국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관련 금융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의 알리페이 (Alipay)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는 위안화를 적극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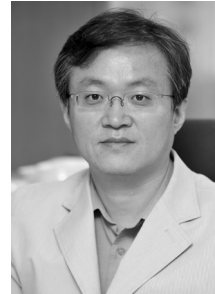
1. 임진,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2014.4월
2.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보도자료, 2014.1월
3. Blomstrom, Magnus, Robert E. Lipsey, and Mario Zejan. “What explains developing country growth? “, No. W413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4.
4. Borensztein, Eduardo, Jose De Gregorio, and Jong-Wha Lee.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1, 1998.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hyoh@krivet.re.kr



1.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었고 부실기업 문제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부채,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근심거리로 부상했다. 기업과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일반국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국민들이 개발연대에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은 희미해지고 취업난, 가계부채, 노후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5,973달러이고 달러당 환율 1,000원이라고 보면 4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연간 약 1억 원이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약 5,000만원으로 체감소득과 경제지표간의 괴리가 심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자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80.1%에서 2013년 62.5%로 체감 중산층이 11년 만에 17.6%포인트나 줄었다. 과거에는 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교육부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위원(현),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현),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사(현), 한국취업진로학회 이사(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전),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사무소 전문위원(전), 국민대학교 강사(전), 기획재정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14)』 외 일자리 창출 및 취업난 해소 관련 연구 다수.

출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온기가 서민에게까지 골고루 미치는 낙수효과(trickling effect)가 작동되었지만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편중된다. 개발연대의 성장도식이 수명을 다했음에도 새로운 성장의 방정식을 찾지 못한 탓이 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취업준비능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무엇보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 2013년 국내 설비투자는 1,127억 4000만 달러로 10년 전보다 겨우 60% 늘어난데 그쳤지만,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353억 8000만 달러로 294%나 급증했다. 경비절감을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기업의 국제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해외투자를 상쇄할 만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데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석오조(一石五鳥)’로 부르는데, 첫째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및 투자를 진작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는 평균노동생산성, 급여, 연구개발투자 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연태훈, 2003; 이병기, 2002)) 둘째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원본상환이나 이자부담이 없는 장기외자를 유입시키고, 셋째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국산품 사용비율을 높여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한다. 넷째로 외국기업들이 도입하는 최신 경영 기법과 한국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국내기업들에게 외부경제 효과를 미친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들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사업부문 및 자산 매각을 통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외국인투자하면 흔히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경영권보다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기업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인수합병(M&A) 투자로 구분되는데, 공장설립형 투자는 외국인이 한

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투자자금이 유입될 때, 인수합병 투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한국회사를 외국인이 매수하여 투자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때 각각 성립된다.

우리나라에서 외자유치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이지만, 1997년 말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 목표가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자본확보 차원에서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차관방식으로 선별도입하던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나 이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안정적 외자확보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표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체계

과 거	현 재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에 필요한 부족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도입에 중점 -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 선별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외자확보
외국인투자제도 : 규제와 관리중심	→ 촉진과 지원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개방 -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중심 외자유치 - 조세지원 중심의 경직적인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의 전면자유화 - 간소하고 투명한 투자제도 -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유치체제 : 앉아서 기다리는 체제	→ 찾아가서 모셔오는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업체의 단순상담 및 안내 - 일회성 투자유치 활동 - 개별적 투자유치체제 - One-Stop Service체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타겟기업 집중유치 - 지속적 사후관리 및 애로해소 - 유관기관간 유기적 연계체제 -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

외국인투자제도도 과거의 규제 및 관리 위주에서 지원 및 촉진으로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과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복잡한 투자절차, 조세중심의 경직적인 지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외국인투자를 전면자유화 하여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업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투자유치체제도 과거에는 앉아서 외국인투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찾아가 모셔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즉,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Korea」를 설립하여 전략적 목표기업을 선정 후 유치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국가적 노력의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였지만 2000년 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이 담보상태에 머물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적 노력도 시들해짐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해외시장 개척, 자원확보 및 경비절감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함으로써 2008년부터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잔액이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잔액을 초과하는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표 2> 우리나라 FDI의 유출입 잔액(단위 : 억달러)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2년
해외직접투자(A)	133	215	387	979	2,018
외국인직접투자(B)	182	437	1,049	947	1,561
순유입(B-A)	49	222	662	32	457

자료 : UNCTAD(<http://unctad.org>)

3.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지원제도 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투자처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매력을 세일즈하고 특성에 맞는 유치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본질은 결국 도시 간(혹은 지역 간)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입지결정에서 국가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지결정은 특정 도시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스페인의 빌바오시는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났고, 캐나다 내륙 앨버타주 에드먼턴시는 1985년 당시 세계 최대 수준의 복합쇼핑몰 건설을 통해 쇼핑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서울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선 입지적 이점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 국가 인구는 15억 명, 3,000km 이내로 확장하면 17억 명이 넘는다. 또한, 서울시의 1,000만 인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자본이자 소비시장이며, 서울의 철도,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주거, 교육, 문화시설, 통신인프라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자

산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추진이 요청된다.

첫째, 도시 공간 개발계획과 외국인투자유치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잠재력이 높은 특정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지역인 잠실운동장, 한강 노들섬, 상암, 여의도, 용산 등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에서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일본과 대만, 러시아 등 동북아 각국이 복합 리조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잠실의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하여 무역센터-한전부지-잠실운동장 지역을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마이스(MICE) 산업메카로 개발하자는 구상은 충분한 검토가치가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동대문의 패션, 상암의 미디어, 여의도의 금융, 홍대의 음악, 강남 테헤란로의 IT벤처, 압구정동의 미용·성형 등과 같이 집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점-선-면’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의 입지적 특성상 대규모 제조시설을 유치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결국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모바일, 인터넷, 게임, 음악, 영화, 패션, 의료, 미용, 미디어, 관광, 전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다. 그것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층의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 서울시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해외투자처이고 최근 들어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갑작스런 등장에 발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범사례는 제주도인데, 도로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하는 것부터 공무원, 상인 등을 위한 중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중국 관광객과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지난 5년 사이 20배 증가하였고 시급도 우대조건이 없는 경우에 비해 60%가량 높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국어 교육의 강화는 이제 필수적이다.

** 한국경제신문(2014). "외식 알바생, 중국어 가능하면 '브라만' 대우" 10월 6일자 인터넷기사.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 의료, 외국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비단 외국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번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원순오호영(2002). 아젠다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 박창현·조항서·안성희·박종익(2014).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BOK 경제리뷰.
- 연태훈(2003). 『외국인 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3-05.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기(2002).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2-21.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UNCTAD. <http://unctad.org>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
포트

■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향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안

김영등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cafebbang@daum.net

I. 추진배경

1.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 생활창작과 사회적경제

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추진 현황과 성과

1. 행사개요
2. 추진방향
3. 추진성과

I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
2. 발전방안

I. 추진배경

1.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2014년 올해 처음 개최했지만 그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젊은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이하 프리마켓, Seoul Art Freemarket)을 시작하였고 이런 활동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로 성장하였다.

프리마켓은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해 창작성 전시와 판매, 공연, 창작 워크숍 등을 펼치는 주말 시장(장터)로서 손작업하는 다양한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창작자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교류의 장, 공공공간의 문화공간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국제적인 관광명소,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 프리마켓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프리마켓은 홍대 앞에서 시작했고 가장 활발하지만 ‘홍대 앞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전국에 확산되어 여러 지역과 행사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과 문화의 활동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2. 생활창작과 사회적경제

프리마켓은 야외에서 주말에 열리고 창작자가 작품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시민들을 만난다. 개성있는 작품이라면 전공, 경력, 나이, 성별,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창작 워크숍과 공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펼쳐진다. 그리고 때로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열거나 창작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과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대체로 프리마켓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창작과 자립적인 활동을 꾀하고 있다.

프리마켓은 창작을 매개로 하지만 기존 창작활동과 다른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을 ‘생활창작’으로 부른다. 생활창작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에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생활영역에 깊게 연결되고 생활(일상)의 변화를 꾀하는 것까지 이르는 폭넓은 활동이다.

프리마켓은 1년 단위로 창작자를 등록받는데 대략 400여명(등록신청자는 1000여명)이 등록해 활동한다. 최근에는 저성장 고실업 사회인만큼 기존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높은 만큼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일반적인 창작영역 뿐 아니라 농업과 요리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프리마켓과 생활창작은 사회적경제영역의 발전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추진 현황

1. 행사개요

〈표 1〉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행사개요

구분	내 용
명칭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4 Seoul International Handmade Fair 2014
기간	2014년 9월 17일(수) ~ 20일(토) / 4일간 (오전 10:00 - 오후 7:00)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Hall B
규모	7,290 m ² (19개국 402개사 546부스)
주최	사회적기업 일상에술창작센터, (주)한국국제전시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청년허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한국공예가협회

2. 추진방향

먼저, 일상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시장과 대규모 박람회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기존 프리마켓과 생활창작의 활동과정에서 관계 맺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사를 만드는 것이 행사의 의미도 살리고 행사 자체의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위원회와 큐레이터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행사의 방향과 내용에서 일관성을 만들었다.

또한, 핸드메이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주제를 ‘핸드메이드_오래된 미래를 열다’로 잡았다. 핸드

메이드를 개인의 취미영역이나 단순히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와 실천 속에 두어야 핸드메이드가 가진 새로운 창 의와 성장동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핸드메이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고 연결하는데 집중했다. 페어이기 때문에 부스를 판매해야 하고 거기서 기본적인 수입을 달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핸드메이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야 행사의 기본이 구성되는 만큼 1인창작자, 단체와 기업, 지자체와 기관, 연결이 가능한 다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로 참가를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페어의 기본 축으로 구성하고 핸드메이드 영역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환경에서 핸드메이드도 국제적인 교류는 기본인 만큼 국제적인 교류의 시발점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관람객 즉 시민들이 행사에 와서 핸드메이드의 폭넓은 세계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경험하며 능동적인 참여와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페스티벌로서 의미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3. 추진성과

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다. 핸드메이드 관련한 1인창작자에서 단체와 기관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만남과 교류, 주제와 이슈가 살아 있고 문화와 경제적인 영역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자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등을 만들었다. 핸드메이드를 주제로 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박람회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였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넘게 핸드메이드 영역을 개척해온 현장그룹이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 2〉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결과

구분		내 용
전시장	코엑스	7,290 sqm(B홀)
참가 업체		19개국 402개사 546부스
		공예(161), 패션(91), 리빙(78), 아트(63), 재료/도구(24), 먹거리(24), 그린(20), 뷰티(15), 퍼포먼스(13), 기타(6)
참관객	총계	45,722명
	성비	여성 78%, 남성 22%
	연령	20대 35.9%, 30대 30%, 40대 18.7%, 50대 8.1%, 10대 5.7%
	목적	일반관람 58.8%,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18%, 작품구매 17.9%, 차기년도 참가검토 2.2%, 이벤트 1.8%, 바이어 1.4%

* 참가업체분류는 참가업체의 해당 품목 군에 따라 복수 체크가 있음

〈표 3〉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행사구성

구분		내 용
주제관	섹션1	개별의 삶이 있는 역사, 공동의 역사를 지닌 삶, 삶과 함께 한 핸드메이드
	섹션2	핸드메이드(handmade)는 핸드에이드(handaid)다
	섹션3	미래의 핸드메이드_온고지신(溫故知新)
특별관	1	서울시 사회적경제관
	2	디렉터스초이스, 해외특별관
행사 구성	Living& Art	핸드메이드는 생활이다
		페어에 참여한 개인, 기업, 단체, 기관의 다종다양한 부스존
	Play	핸드메이드는 놀이다
		창작공방존, 캐리커처&초상화존, 라이브페인팅존 등
	Event	핸드메이드는 마당이다
		어쿠스틱 릴레이 공연, 세미나(주제전 참여작가와 만남) 핸드메이드토크, 생활창작포럼, 창작 관련 실무강의 등

I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 첫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서울은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영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올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시사회적경제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서울시창작공간’ 부스 등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번에 페어에 참가한 대부분의 단체와 개인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구성원들이다. 그런 만큼 서울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흐름을 기반으로 그런 흐름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박람회로서 성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핸드메이드는 인간의 작은 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 국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일부 국가의 핸드메이드 관련한 공동체,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의 국제성을 살릴 수 있었다. 향후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핸드메이드 플랫폼으로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를 폭넓게 일궈갈 것이다.

핸드메이드는 역사와 함께 하지만 최근 창의경제나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단순한 판매전과 같은 행사는 더러 있지만 핸드메이드가 가진 의미와 방향 그리고 공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우리 사회 핸드메이드의 현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로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다.

2. 발전방안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성과를 만들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흐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 정책과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

2015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보다 한 단계 발전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하며, 그런 면에서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발전하려면 행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페어와 연결된 일상적인 활동(사업)과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마켓과 같은 시장 그리고 생활창작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없다. 창조나 창의를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없어서 걸돌기 쉽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그에 기반한 발전 전략을 도시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MICE 사례로 사회적경제영역 발전의 실질적인 전진기지로서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아름다운 손들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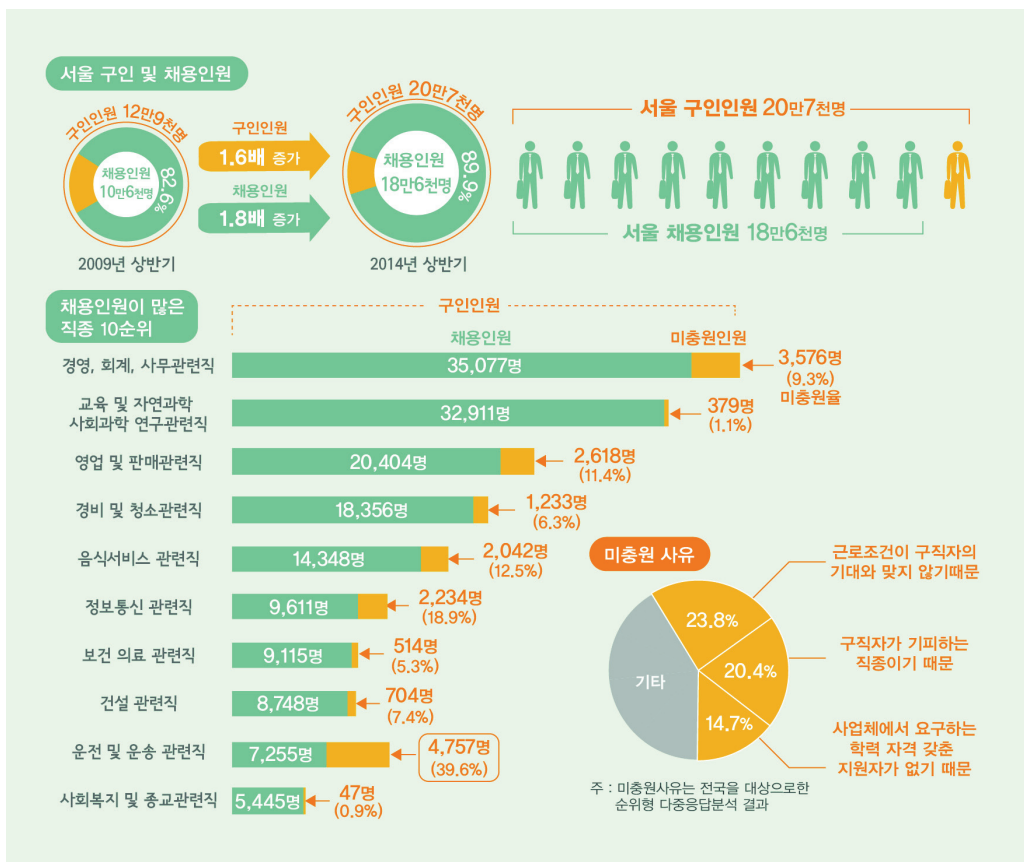
■ 서울의 직종별 채용인원 현황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의 직종별 채용인원 현황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2014년 상반기 서울에서 채용된 인원은 18만6천명으로 구인인원의 89.9%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분야는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며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분야가 가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상반기 서울에서 채용된 인원은 18만6천명으로 구인인원의 89.9%
 - 2014년 상반기 서울 채용인원은 18만6천명으로 구인인원 20만7천명의 89.9%이며 5년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
 - 지난 5년간 서울의 구인인원은 1.6배 증가하였으며 채용인원은 1.8배 증가
 -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3만5천명,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 과학연구관련직’ 3만 3천명, ‘영업 및 판매관련직’ 2만명 순
- 서울의 직종 중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가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였음에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39.6%로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며 미충원 인원 수도 4,757명으로 전 직종 중 가장 큼
 - 구인을 하였음에도 충원하지 못한 사유는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2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20.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 자격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4.7% 순

〈표 1〉 2009 상반기 ~ 2014 상반기 서울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단위: 명, %)

	구인인원	채용인원	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
2009 상반기	128,625	106,299	82.6
2010 상반기	168,824	144,417	85.5
2011 상반기	158,571	132,167	83.3
2012 상반기	161,463	140,905	87.3
2013 상반기	183,606	160,893	87.6
2014 상반기	207,270	186,140	89.8
연평균 증가율	10.0	11.9	

〈표 2〉 2014 상반기 서울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단위: 명, %)

	현원	구인인원	현원대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미충원률
전 직 종	2,844,590	207,270	7.3	186,140	21,130	1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756,864	38,653	5.1%	35,077	3,576	9.3%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84,171	33,290	18.1%	32,911	379	1.1%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27,921	23,022	7.0%	20,404	2,618	11.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72,500	19,589	11.4%	18,356	1,233	6.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12,434	16,390	14.6%	14,348	2,042	12.5%
정보통신 관련직	190,351	11,845	6.2%	9,611	2,234	18.9%
보건, 의료 관련직	136,936	9,629	7.0%	9,115	514	5.3%
건설 관련직	207,927	9,452	4.5%	8,748	704	7.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14,574	12,012	10.5%	7,255	4,757	39.6%
사회 복지 및 종교 관련직	49,897	5,492	11.0%	5,445	47	0.9%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11,775	5,844	5.2%	5,383	461	7.9%
금융, 보험 관련직	146,066	4,852	3.3%	4,622	230	4.7%
전기 전자 관련직	73,909	3,523	4.8%	2,836	687	19.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 련직	46,925	3,068	6.5%	2,671	397	12.9%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 산 단순직	42,226	2,930	6.9%	2,582	348	11.9%
기계 관련직	60,271	3,065	5.1%	2,502	563	18.4%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25,247	1,753	6.9%	1,669	84	4.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768	947	4.8%	941	6	0.6%
관리직	46,443	945	2.0%	931	14	1.5%
식품 가공 관련직	7,274	495	6.8%	381	114	23.0%
재료 관련직	5,147	252	4.9%	201	51	20.2%
화학 관련직	5,181	181	3.5%	115	66	36.5%
농림어업 관련직	783	40	5.1%	33	7	17.5%

〈표 3〉 미충원 사유

(단위:%)

구분	비율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23.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20.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 자격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4.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11.7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경쟁 때문	11.5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8.8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5.6
기타	3.5
합계	100

주: 구인인원: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기간 내에 채용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을 구인인원으로 산정
 채용인원: 구인인원 중에 조사기준 기간내에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된 인원
 미충원인원: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미충원율: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x100
 미충원사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순위형 다중응답분석 결과
 자료 : 2009, 201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경제
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정의영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 · 약 | 8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8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4.8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8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5.6% 감소, 1.8%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263억원으로 전국(6조3,547억원)의 33.5%를 차지
- 8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5%,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4.9% 각각 증가

고 용

-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1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9천명(1.0%)이 증가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물 가

- 2014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은 종로구(0.35%) 서초구(0.33%)와 강남구(0.2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3% 상승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26% 상승 하였고, 강북(0.30%), 강남(0.21%)모두 상승. 중구(0.84%), 종로구(0.81%), 관악구(0.54%)의 상승폭이 가장 높음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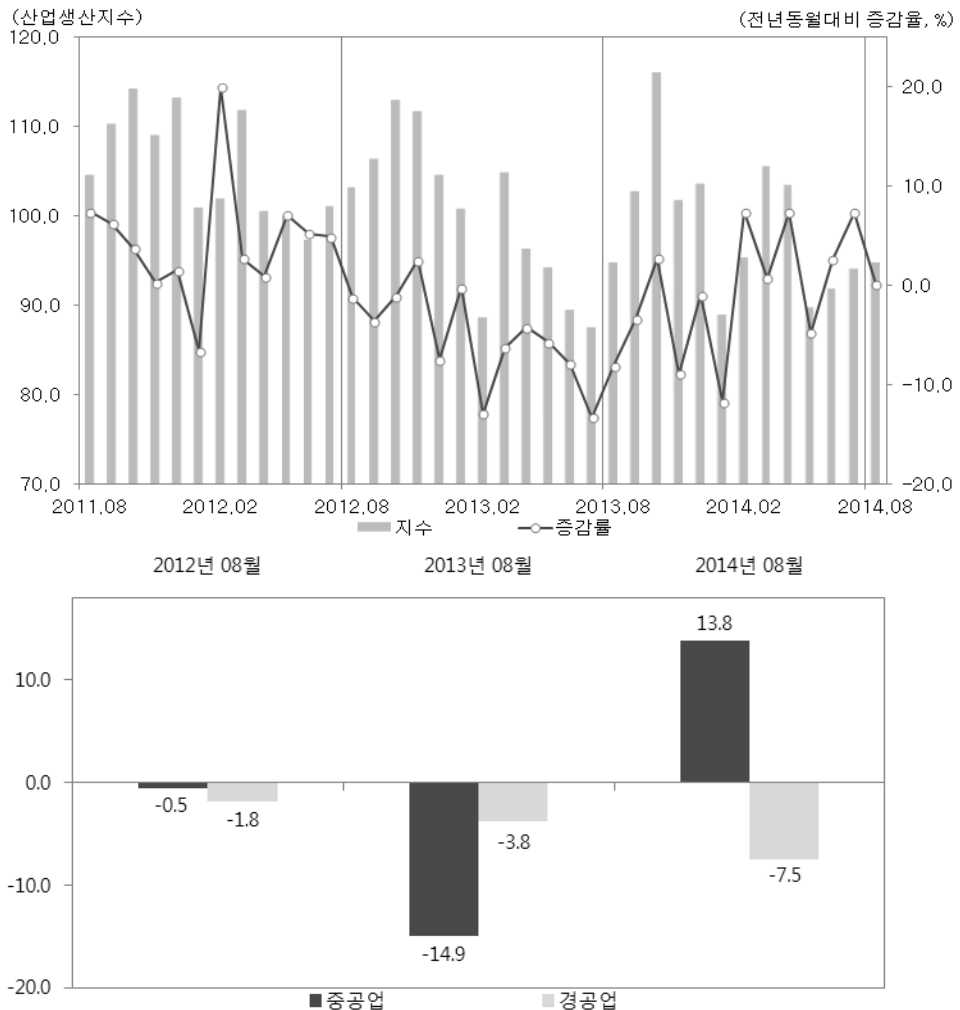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84조 3,646원으로 전월대비 0.236% 증가. 가계대출은 182조 8,389억원으로 전월대비 0.6% 증가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는 2,164개로 전월대비 15.3% 감소
- 서울의 8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5.6%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8월 수출은 4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8월 수입은 10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8월 제조업생산지수 94.8(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 경공업은 7.5%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14.7%), 전기·가스·증기업(4.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8%) 등 증가, 의료정밀광학(-42.7%), 금속가공(-20.1%), 의복 및 모피(-10.8%)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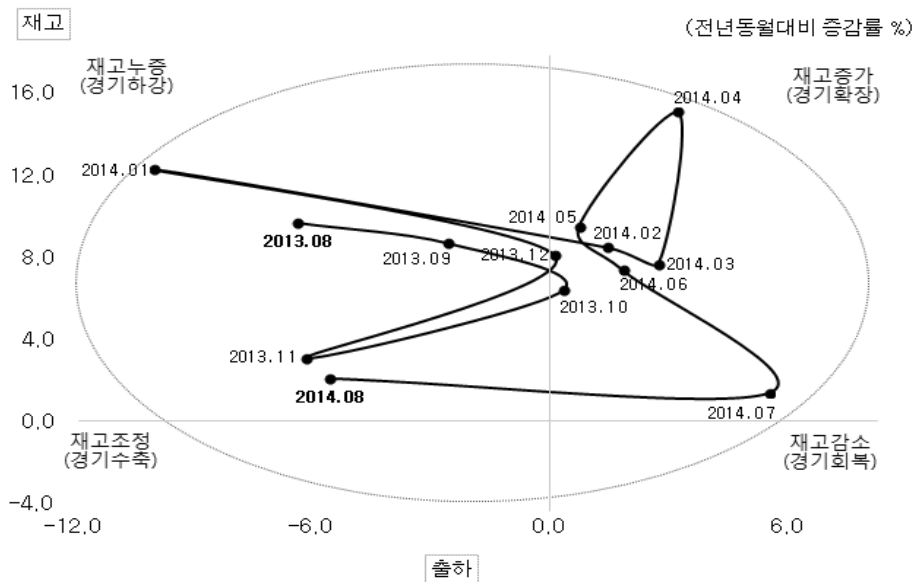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8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8월 출하지수는 92.6(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5.6% 감소
-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15.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상승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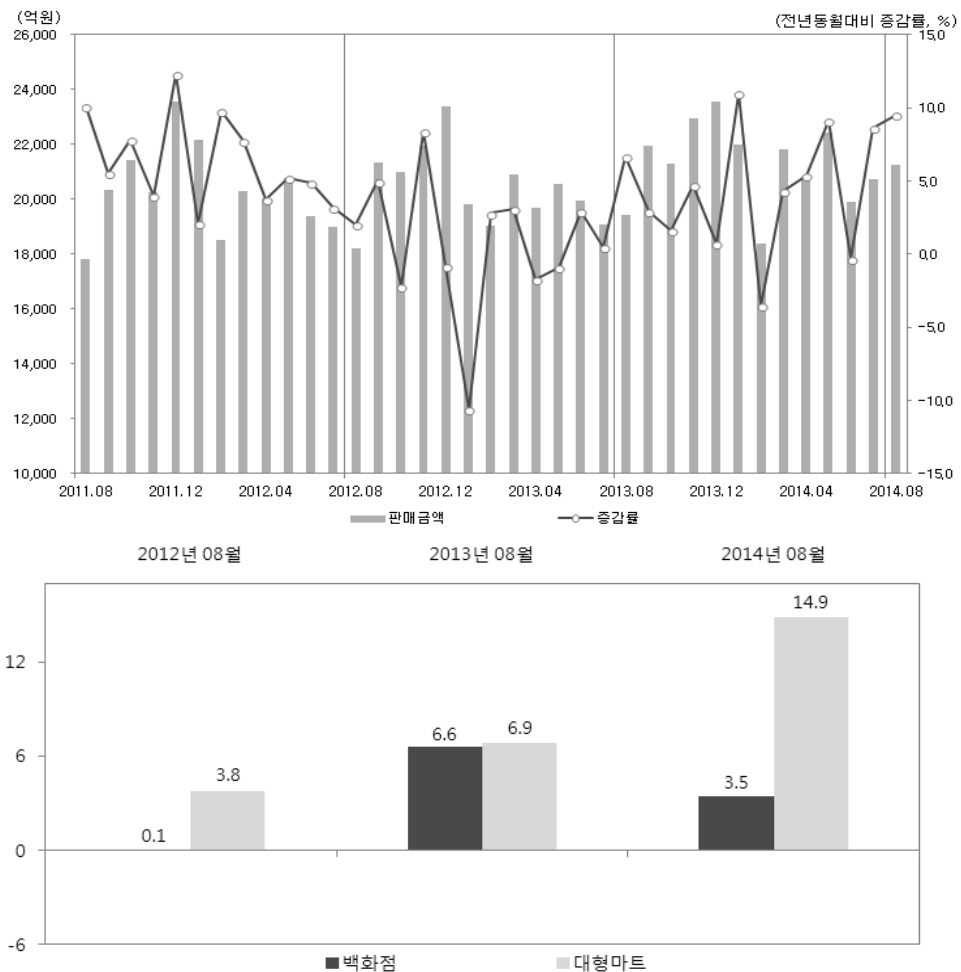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9.5%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263억원으로 전국(6조3,547억원)의 33.5%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9,6178억원으로 전국(2조1,292억원)의 45.2%,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645억원으로 전국(4조2,255억원)의 27.6%를 차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0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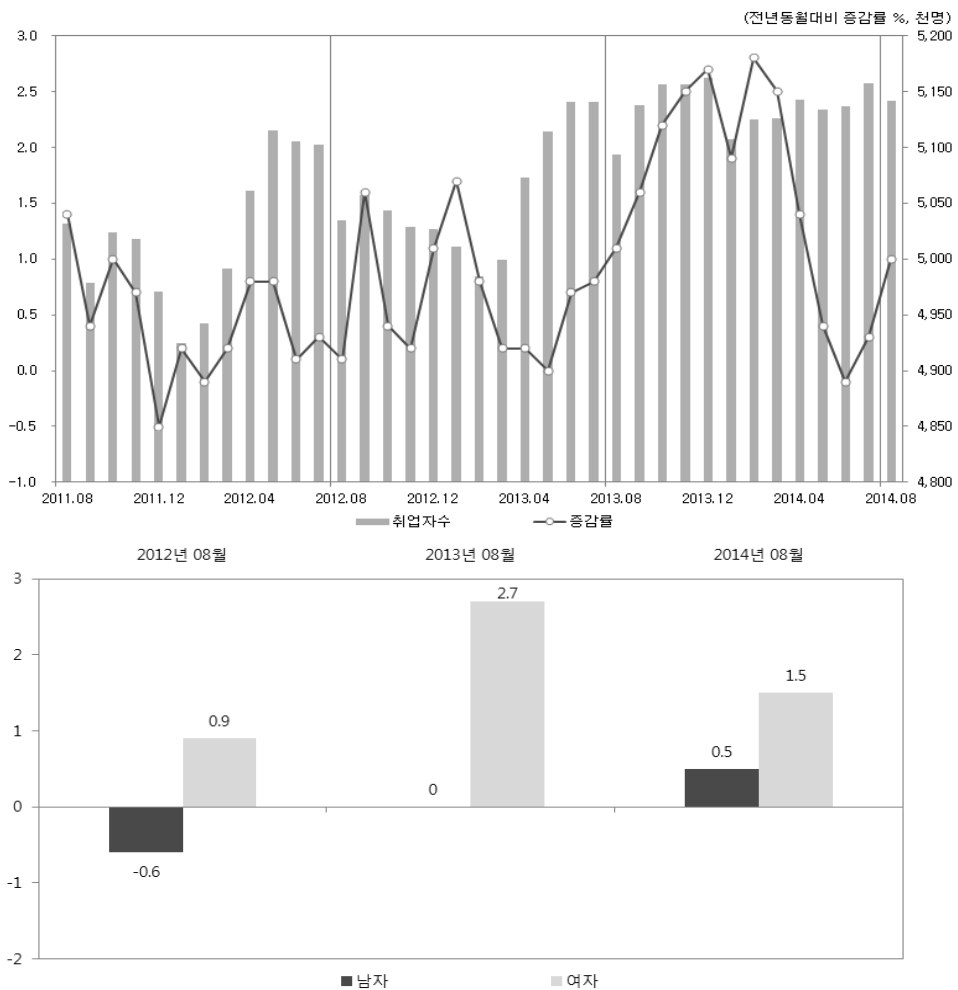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서울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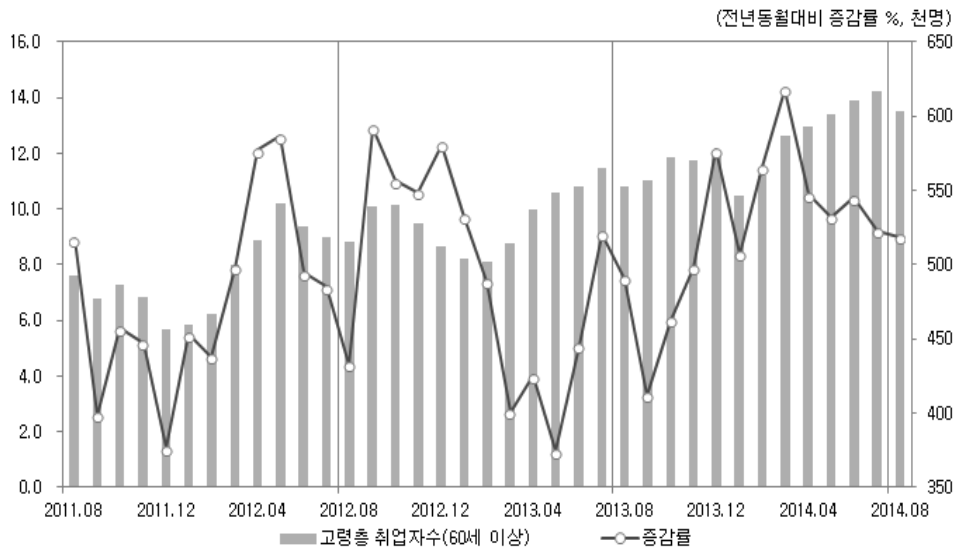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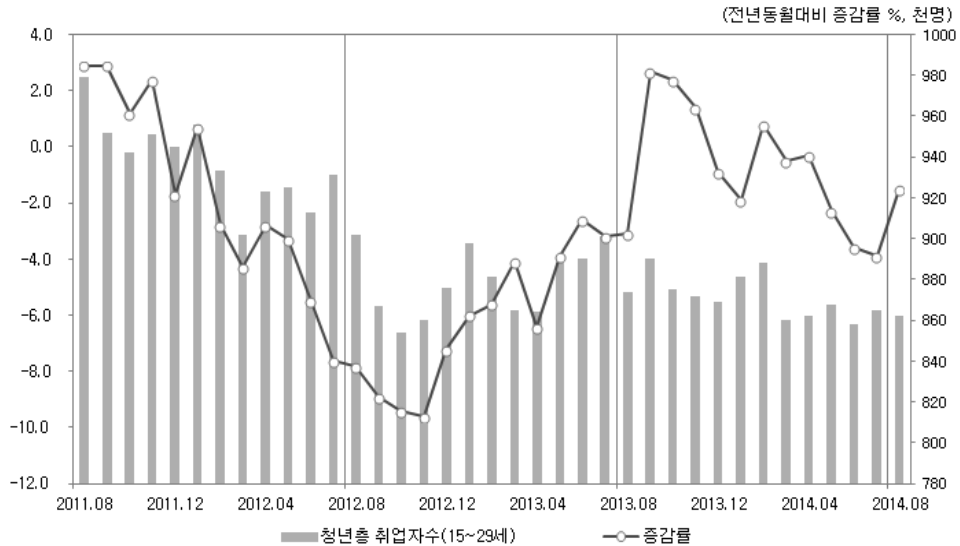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1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9천명(1.0%)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만1천명, 여자는 2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와 여자는 각각 1만6천명(0.5%), 3만3천명(1.5%)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12만4천명(9.4%), 건설업 2만명(6.1%), 제조업 9천명(1.9%)이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증감률은 마이너스, 고령층(60세 이상)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서울의 8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0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 증감률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령층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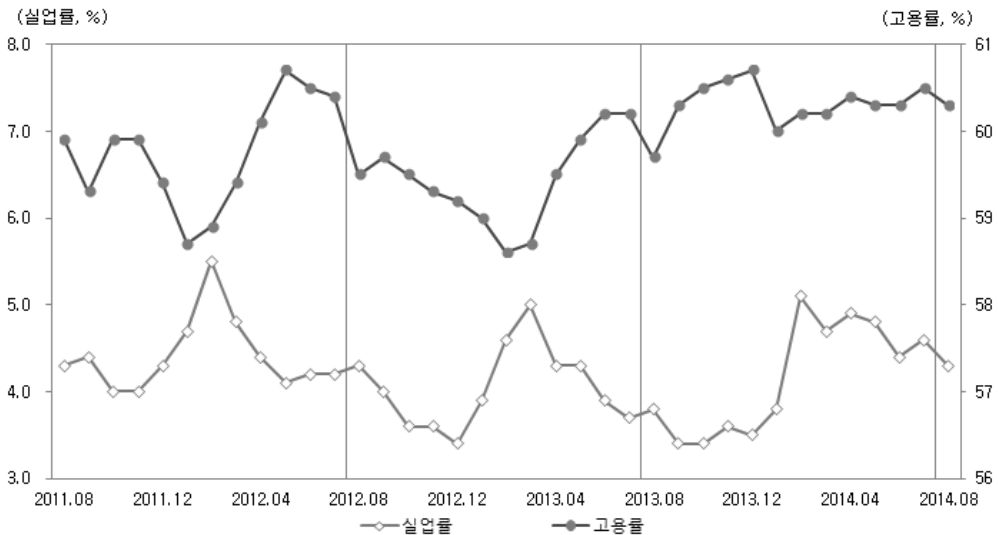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8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1%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여자는 51.4%로 0.8%p 증가
 - 2014년 8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8%)보다 0.5%p 낮은 수준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3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15.1%)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여자는 4.1%로 1.0%p 상승
 - 2014년 8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3%)에 비하여 1.0%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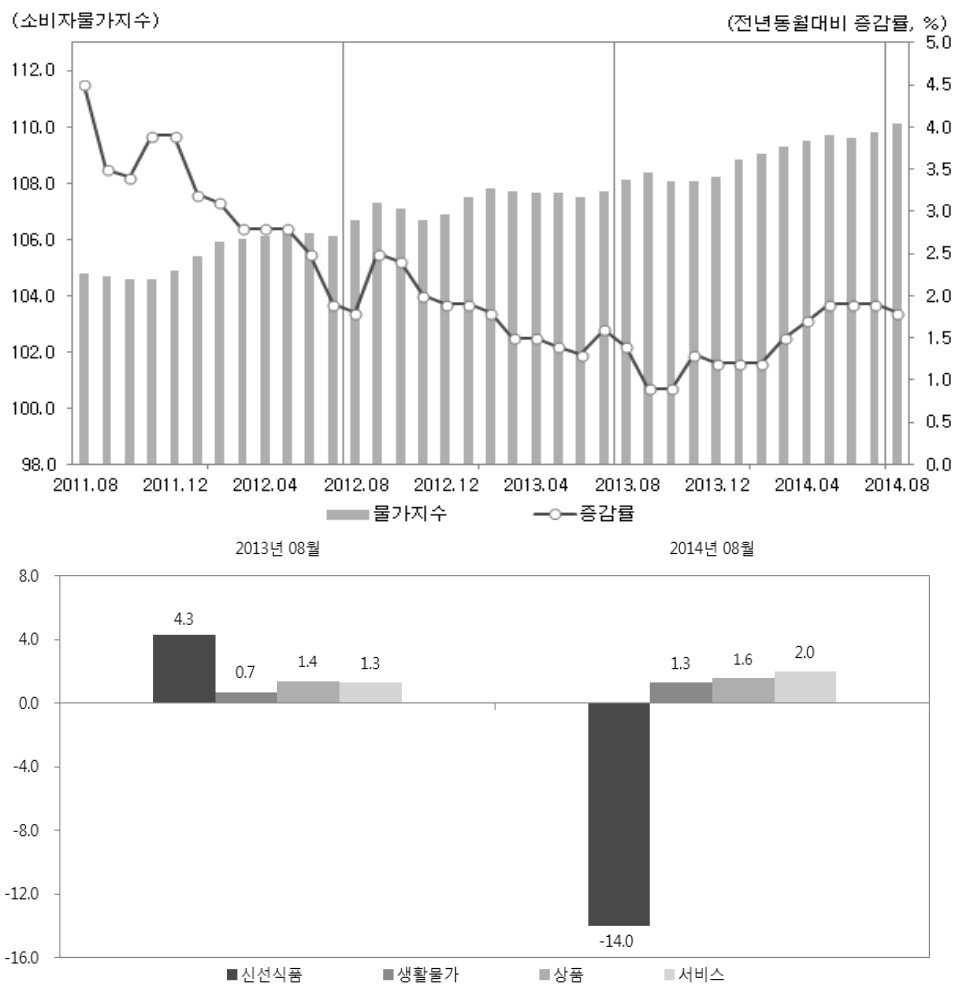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2014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교통(-1.1%), 식료품·비주류음료(-0.5%) 주류 및 담배(-0.3%)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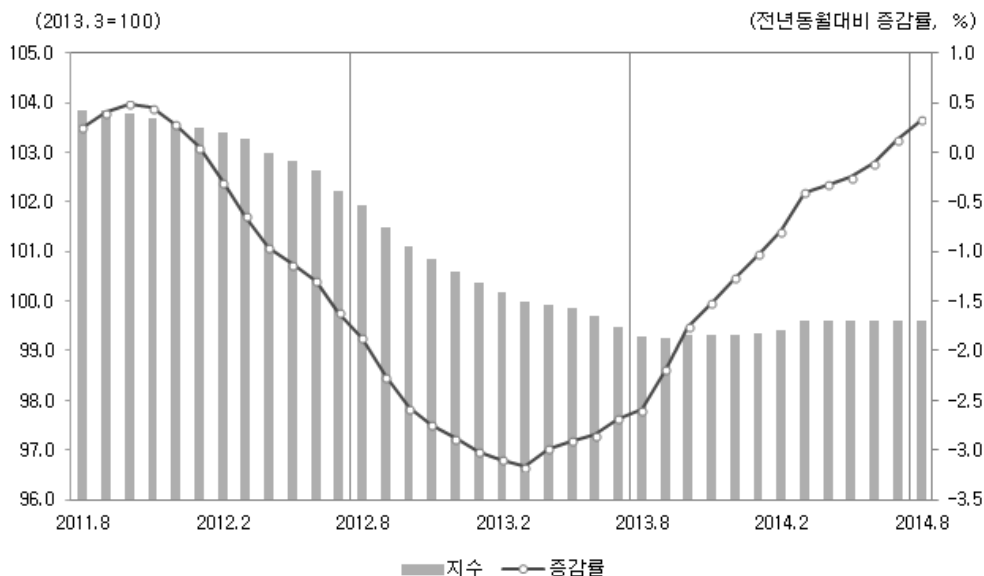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3% 상승

- 강남지역(0.05%), 강북지역(0.01%)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종로구(0.35%), 서초구(0.33%), 강남구(0.25%)
- 주요 하락지역: 강서구(-0.26%), 용산구(-0.17%), 광진구(-0.13%)
- 아파트(0.03%), 연립주택(0.00%), 단독주택(0.07%) 으로 소폭 상승 혹은 보합

■ 전국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3% 상승

- 광역시(0.18%), 수도권(0.09%), 기타지방(0.15%)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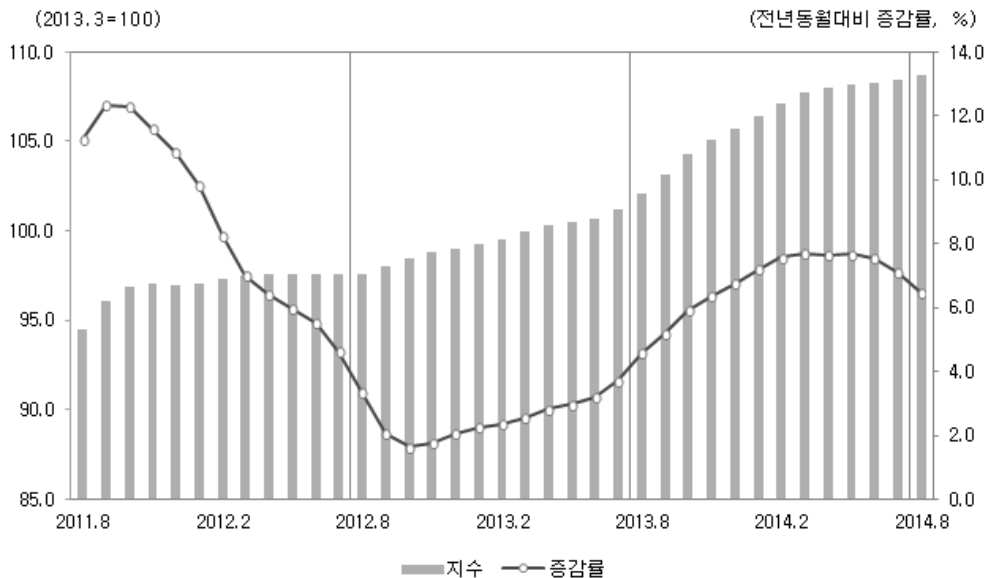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1,637.2만원)은 전월(1,632.8만원)대비 0.27% 증가
- 매매거래건수(6,801건)는 전월(6,171건) 대비 10.2% 증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6% 상승
 - - 강북지역(0.30%), 강남지역(0.21%)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중구(0.84%), 종로구(0.81%), 관악구(0.54%), 동대문구(0.49%)
 - 연립주택(0.34%), 아파트(0.23%), 단독주택(0.23%) 모두 상승세 지속
- 전국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2% 상승
 - 광역시(0.25%), 수도권(0.26%), 기타지방(0.17%)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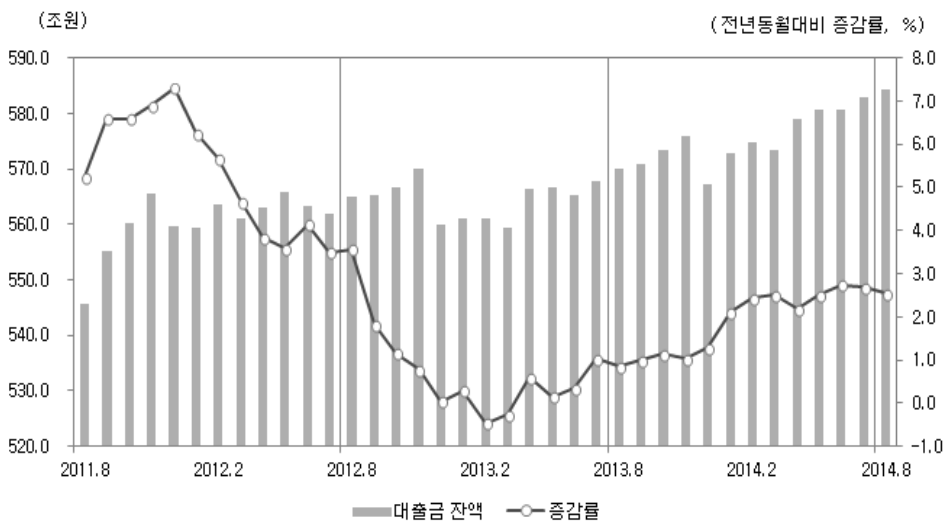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1,020만원)은 전월(1,015만원)대비 0.5% 증가
 - 전세거래건수(9,949건)는 전월(9,705건) 대비 2.5% 증가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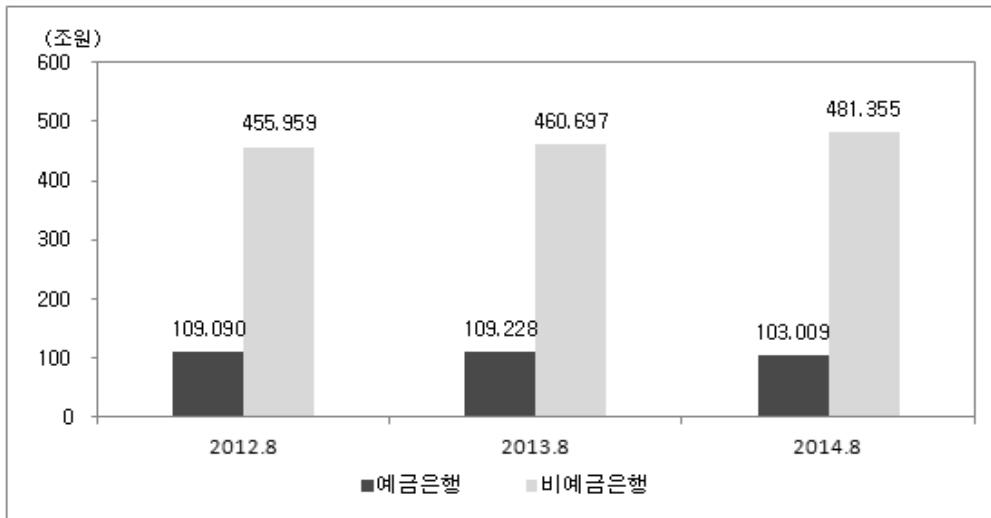
- 8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84조 3,646원)은 전월(582조 9,912억원)대비 0.236%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81조 3,552억원)과 비예금은행(103조 94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증가, 5.7% 감소
- 8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85조 4,777억원)은 전월(1,576조 3,030억원)대비 0.58%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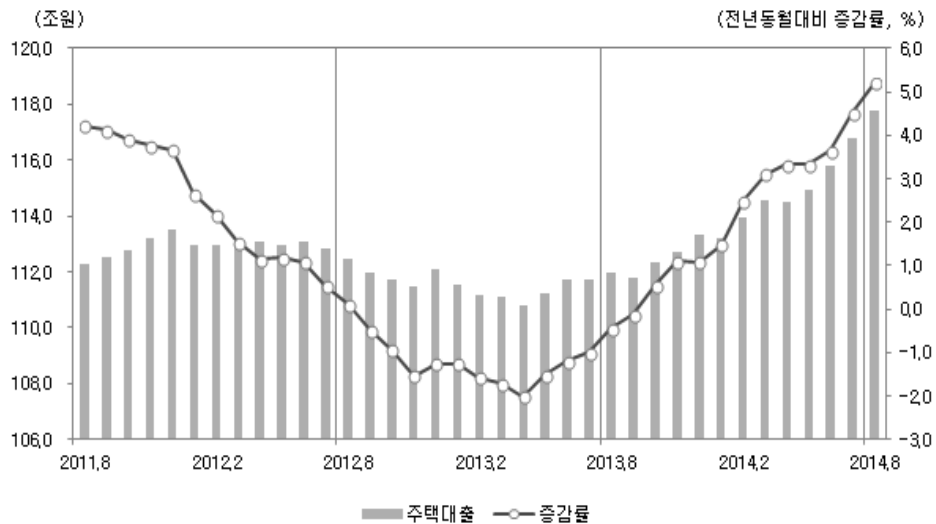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8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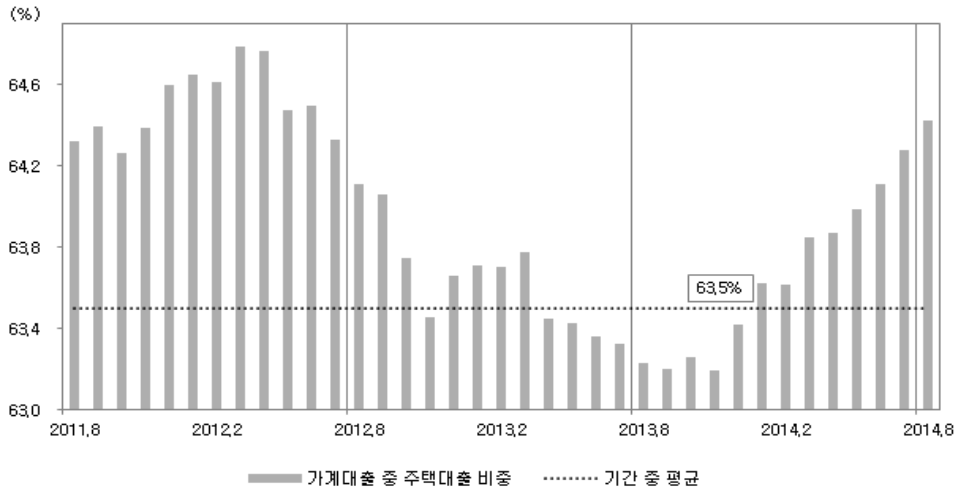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82조 8,389억원)은 전월(181조 6,945억원)대비 0.6%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7조 7,907억원)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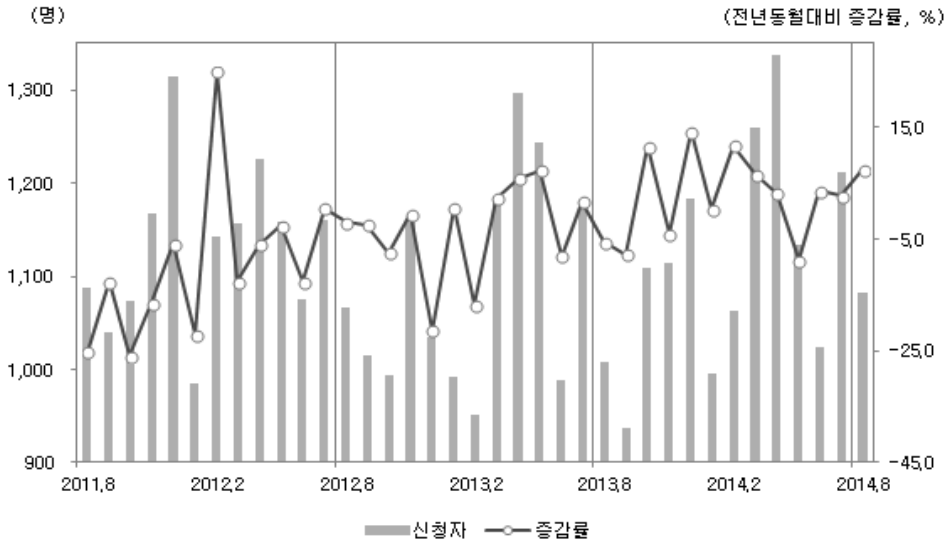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083명)은 전월대비 10.6% 감소,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6.9%)은 전년동월대비 28.1%p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7.8%로 전년동월대비 2.9%p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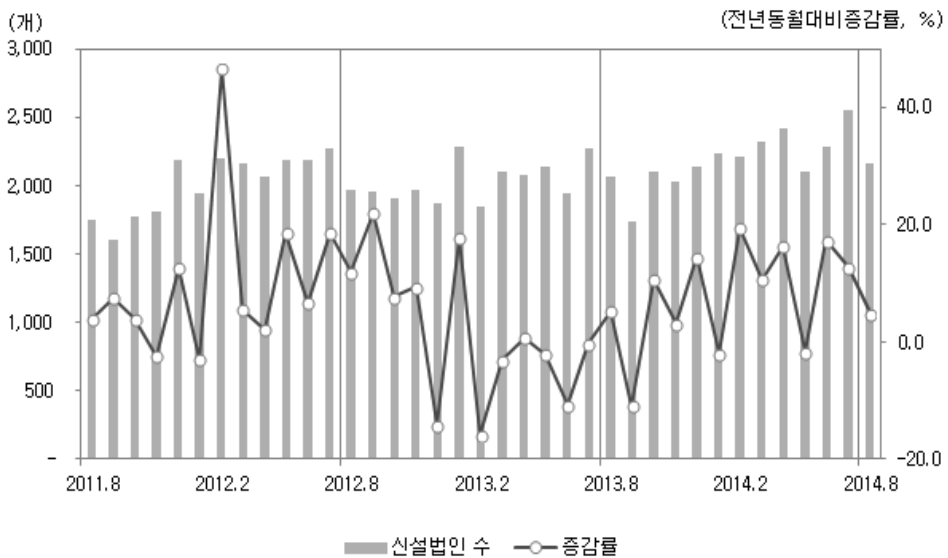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64개로 전월대비 15.3%(392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4.8%(99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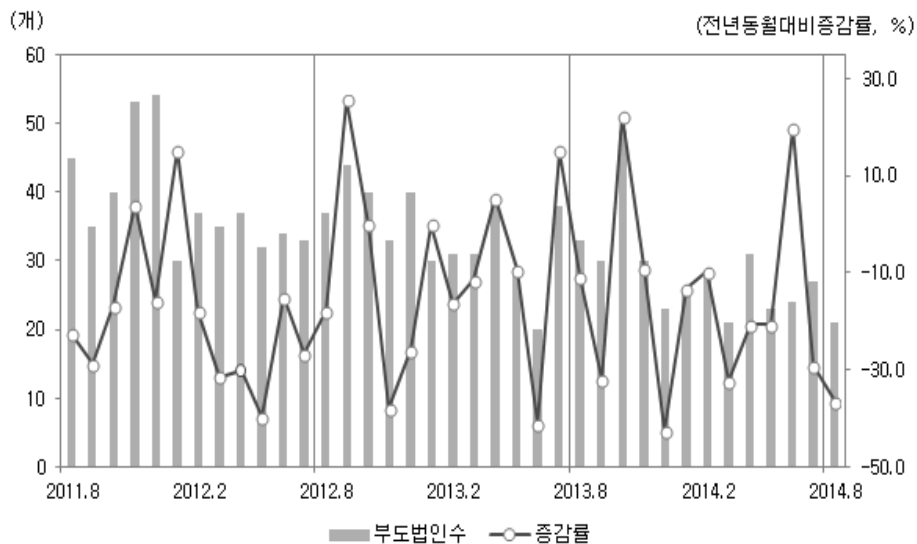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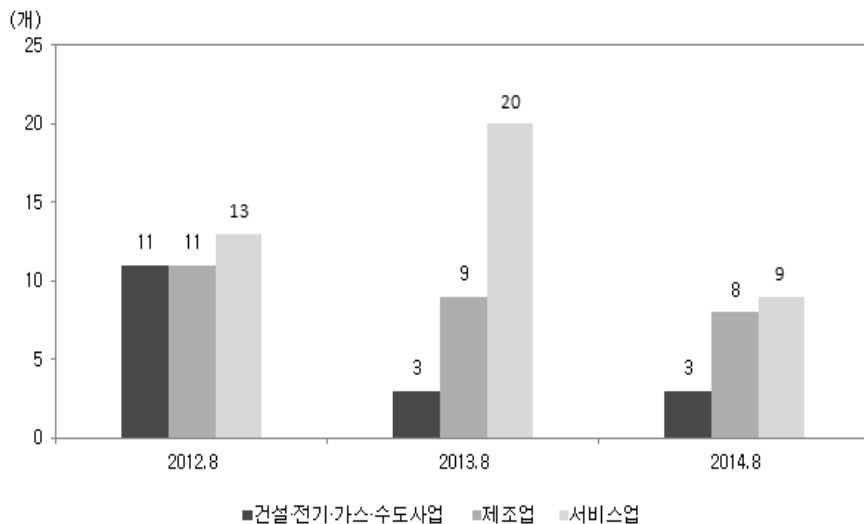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1개로 전월 27개 대비 22.2%(6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6.4%(12개) 감소
-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8개, 서비스업 9개, 건설 및 설비업 3개씩으로 각각 전월대비 38.5% 감소, 25% 감소, 50% 증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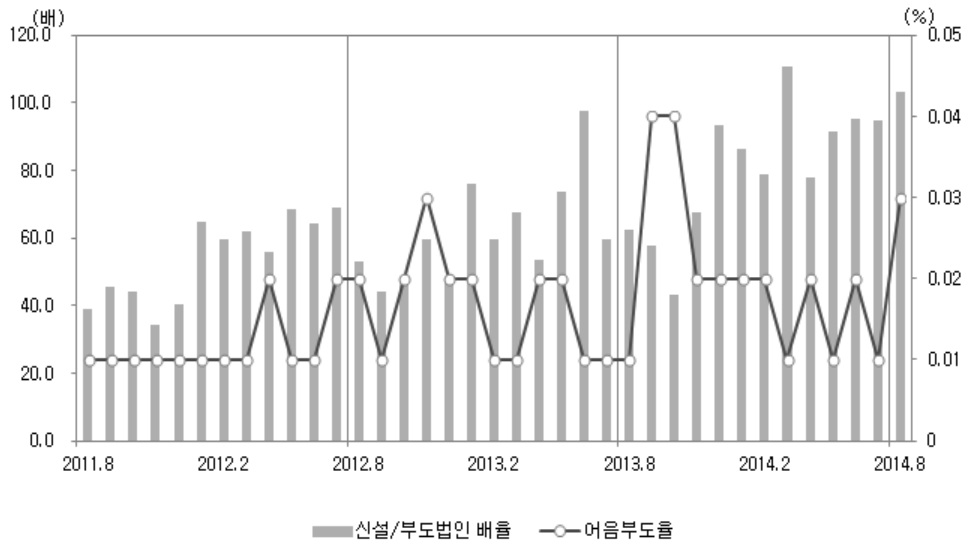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8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103.0으로 전월 (94.7)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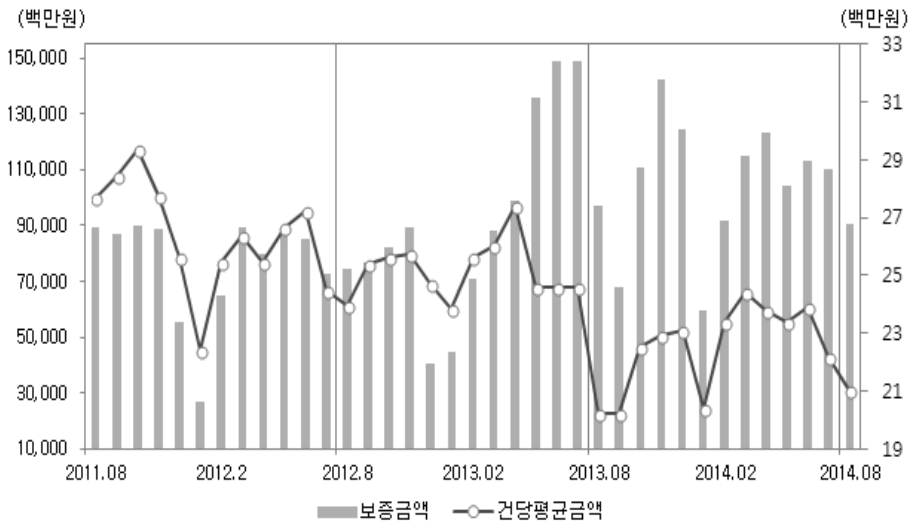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8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90,387백만원 / 4,30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17.9%, 13.0%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5.6%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7.1%, 10.6%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3.9%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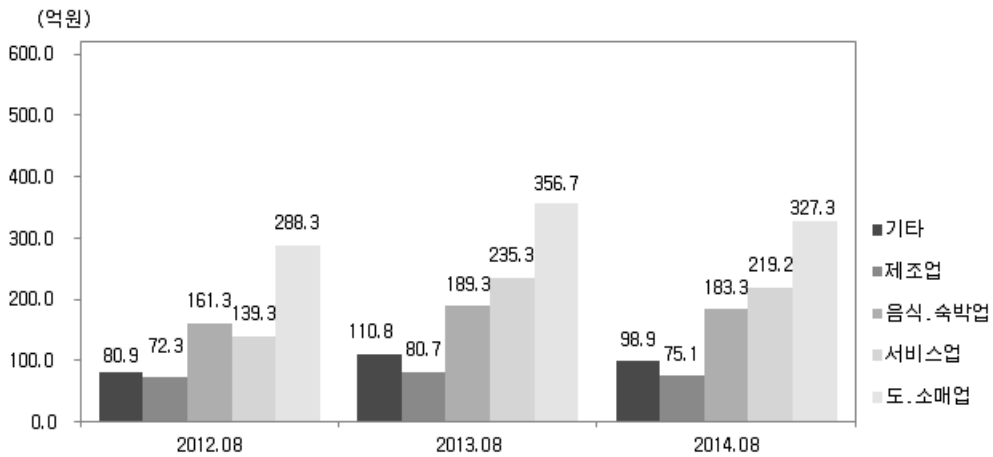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8월 신용보증의 경우, 금액·건수 모두에서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8월 중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공급금액기준 36.2%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24.3%로 그 뒤를 이음.
- 보증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도소매업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이 7.0%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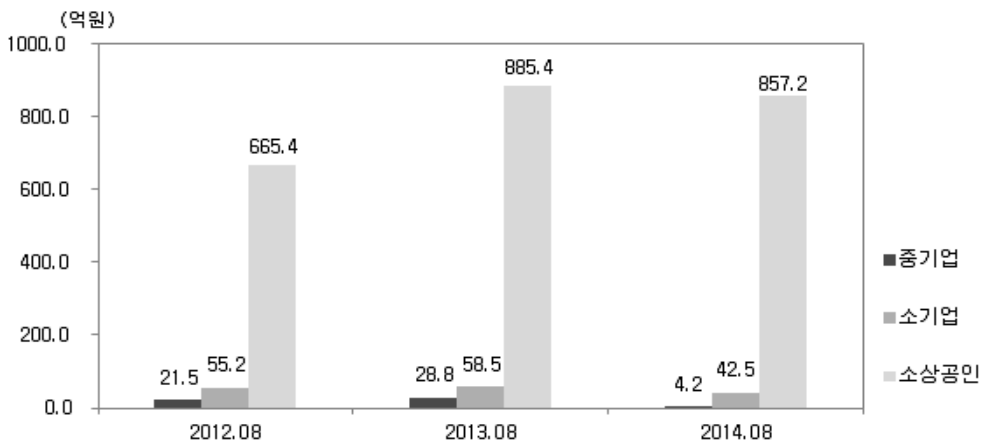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소상공인 지원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4.8%로 전월대비 2.3%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7.9%로 전월대비 0.6%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7%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0%로 전월대비 0.4%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0.5%로 전월대비 1.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1%로 전월대비 0.2%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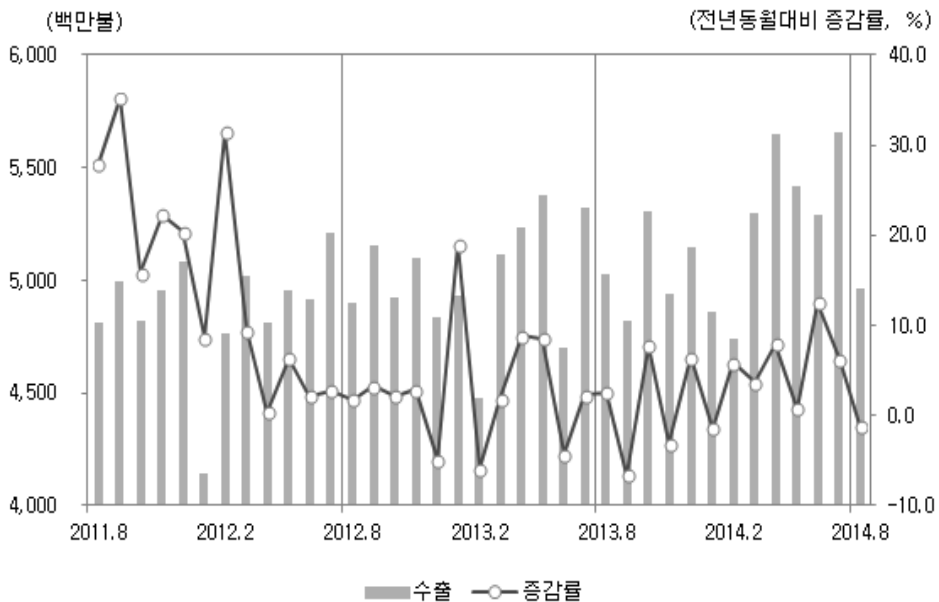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 서울의 8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였고 수입은 10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고 수입은 428.65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서울의 8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센서가 480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117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자동차, 컴퓨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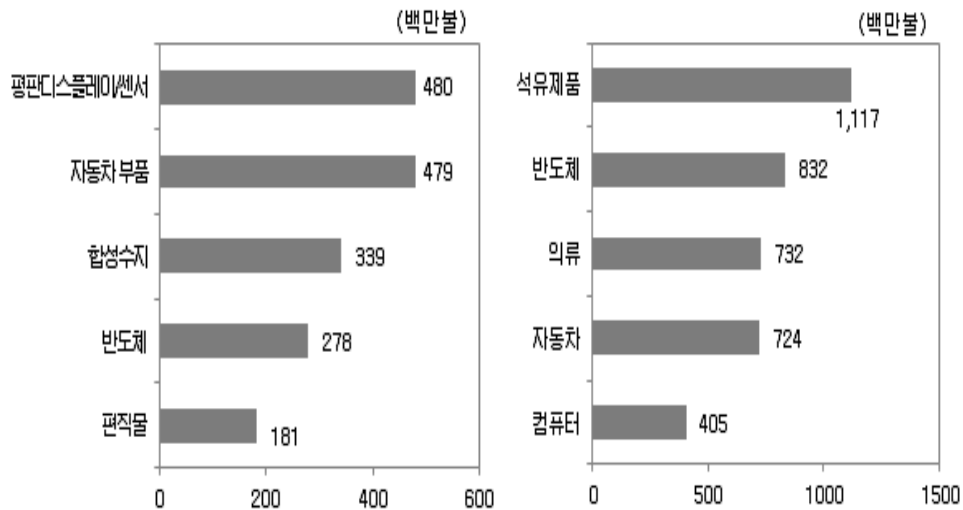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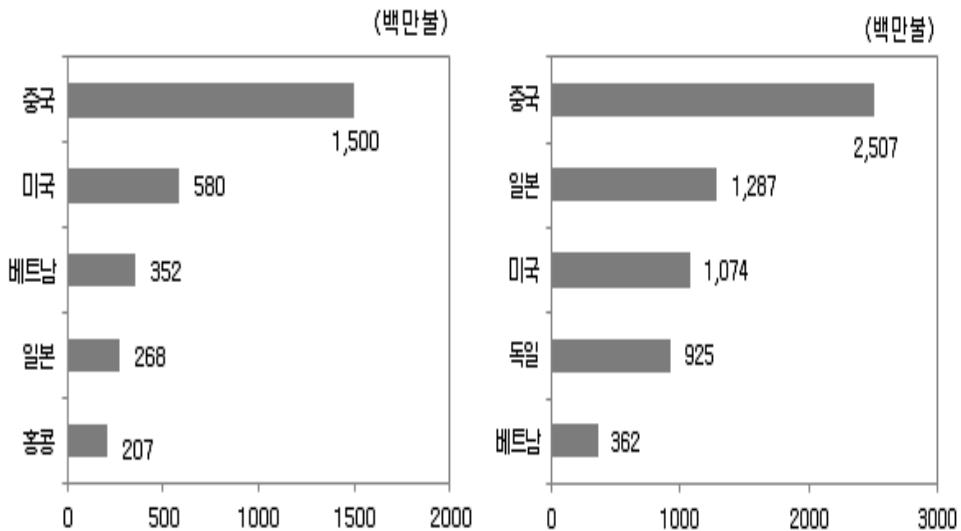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8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한 1,500백만불을 기록하여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역시,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한 2,50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베트남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8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8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8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8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8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